

古新羅時代의 彫刻

秦 弘 燮

一、序 言

三國遺事에는 新羅에 佛敎가 처음으로 傳來되는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여 訥祇王 때(四一七~四五七) 墨胡子라는 중이 高句麗에서 一善郡— 지금의 善山郡—에 왔고 炤知王 때(四七九—四九九)에는 阿道라는 중이 역시 一善郡에 와서 毛禮의 집에 窟을 파고 살면서 숨어서 傳道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그러나 高句麗에 처음으로 佛敎를 傳할 때 중 順道가 佛像과 經文을 가지고 온 것과 같이 ② 墨胡子나 阿道가 新羅에 佛像과 經文을 가지고 왔다는 明文은 없다.

그러나 三國遺事에는 墨胡子가 一善郡 毛禮의 집에 있는 동안에 中國에서 僧元表를 新羅에 보내어 香과 經文과 佛像을 傳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國遺事에는 王女の 病과 관련시켜서 香에 대한 경위는 소상히 기록하면서 經文과 佛像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高句麗에서는 順道와 阿道가 오자 곧 절을 지은 사실과는 매우 사정을 달리하고 있으니, 香에 대하여 그 이름과 用途조차 몰랐음은 당시 新羅社會의 佛敎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示唆한다고 하겠으며 新羅에는 이때에 佛像이 비로소 전달된 사실만을 짐작할 수 있다.

高句麗나 百濟도 한가지지만 三國時代에 各國에서 佛像이 最初로 제작된 時期가 언제인지 또는 어떠한 樣式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新羅에서 최초로 佛像을 제작한 시기는 아무래도 五二八年의 新羅에서의 佛敎公

認 이후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 후 불교는 급속도로 전파되어 곧 이어 興輪寺가 건립되었고(五四三)④, 祇園寺(五六六)⑤, 實際寺(五六六)⑥, 三郎寺(五九七)⑦ 등이 완성되었으며 五五三년에 유명한 皇龍寺가 着工되었고⑧ 哀公寺, 永敬寺, 永興寺 등이 이미 건립되어 있었다. ⑨ 이와 같은 寺刹의 建立에는 奉安 禮拜할 佛像의 造成이 수반되었을 것이니 지금까지의 확실한 예는 五七四년의 皇龍寺 金銅丈六三尊像의 造成이며⑩ 이러한 사실은 皇龍寺 金堂址에 남아있는 巨大한 三尊의 石造臺座로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때에 이러한 거대한 佛像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이에 앞서, 상당한 기간 기술과 정신의 양면에서의 연마가 필요하였을 것이니,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五二八年의 佛敎公認 이후 造像活動은 매우 활발하여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興輪寺가 완성된 六世紀 중엽에는 新羅人들의 제작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佛像들은 지금까지 傳해오는 것이 없어 新羅에서의 佛像 제작의 수준이나 양식의 변천, 즉 최초로 제작한 佛像에서 現存하는 佛像까지의 양식적 연결을 더듬을 수는 없다. 다만 新羅에 佛像이 전해졌을 무렵 中國에서의 造像形式을 감안하여 최초로 전래된 佛像의 樣式을 類推할 수 밖에 없고 新羅에서 佛像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아마도 中國에서 傳來된 佛像이 模本이 되지 않았을까 推定하는 것이다.

한편 역사적 배경을 보면 法興·眞興兩王의 諡號로 보아 독일하게 佛敎를 信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고 ⑪ 眞興王 때에는 領土가 크게 擴張되어 西海岸으로는 漢江流域을 占領하고 ⑫ 東海岸으로는 咸興 利原地方을 巡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地域으로의 佛敎의 침투도 예상되는 바 있으니, 서울 三陽洞出土 金銅觀音菩薩立像이나 中原郡 可金面 磨崖半跏像 등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古新羅時代 佛像 가운데서 現存例가 六世紀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드물고 六〇〇年을 전후한 시기 이후의 造成例가 현저하게 많아지는 사실은 時間이 경과할수록 손상을 입어 滅失되는 가능성이 많았다는 점도 있겠으나 六〇〇年 이후 造

像活動이 활발해졌으리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硬度가 높은 花崗石을 상대로 우수할 石像 또는 磨崖佛들의 제작이 모두 六〇〇年 以後라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造像活動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六〇〇年 以後에 현저하게 나타나 는 사실과도 상응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古新羅時代 佛像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양식을 고찰하기로 한다.

二、古新羅時代 佛像研究의 問題點

첫째 三國時代 佛像의 樣式이 統一新羅時代 佛像樣式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나 三國時代에 高句麗·百濟·新羅에서 제작한 各國의 佛像들을 비교하였을 때 基本的으로 양식상의 차이를 지적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三國時代에 제작된 佛像들에 대하여 소속가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銘文이 있던지 出土地點이 확실하거나 磨崖佛처럼 不動의 作例를 제하고는 단언하기 어려우며 또 비록 出土地가 분명하고 不動의 磨崖佛이라 할지라도 소속국가를 지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慶南 宜寧에서 出土된 延嘉七年 銘金銅佛立像은 비록 출토지가 古新羅의 領域이라 할지라도 銘文에 의하여 高句麗에서 제작된 佛像임이 분명하여 어찌하여 高句麗佛像이 新羅의 領土內로 傳來되었느냐의 문제만이 남게 되어 소속국가가 명확한 예이고, 古新羅의 首都에 있는 慶州南山佛谷 磨崖佛이나 百濟領土인 忠南瑞山의 磨崖佛 같은 것은 그 地理的 위치로 보아 소속국가가 분명하며 慶州 神仙寺의 磨崖佛은 銘文이 있어 兩者를 겸한 例라고 할 수 있다.

다만 三國의 佛像을 비교하였을 때 作風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뿐이다. 다시 말하면 古新羅時代 佛像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관정을 달리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作例의 빈곤을 들 수 있다. 新羅에서 佛教公認後 三國統一까지는 약 一世紀半이 흘렀고 이 사이에 造成되어 현존하는 佛像을 보

면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과 깊은 신앙이 있었음으로 造像活動도 상당히 활발하였으리라고 짐작되거나 현존하는 수는 매우 빈약하다. 皇龍寺金銅丈六三尊像이나 神仙寺磨崖佛 같은 거대한像을, 또는 國立博物館의 金銅彌勒半跏像 같은 걸작을 제작하였고 七世紀初에는 日本에까지 金銅佛을 보냈던¹³ 사실을 생각하면 現存例는 매우 빈약하다. 現存例의 빈곤은 자연히 古新羅時代 佛像의 특징이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을 가져오게 한다. 一世紀半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분명히 양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변화의 자취는 현존례를 통하여서도 짐작되지만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古新羅佛의 특색을 지적할 만한 충분한 作例는 남아있지 않다. 특히 六世紀에 제작된 확실한 예가 없음은 高句麗나 百濟의 경우와 다르다.

다음은 銘文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古代美術品에서 銘文을 기록한 예가 드물다는 사실은 주지의 일이지만 古新羅時代 佛像의 경우는 神仙寺磨崖佛을 제외하고는 없다. 銘文은 절대연대를 설정하는데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造像緣由를 밝혀 信仰의 一面을 推察케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神仙寺磨崖佛의 長文의 銘文으로 말미암아 비록 제작연대를 밝히기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었음을 생각할 때 銘文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하나 이러한 예가 없음은 高句麗나 百濟의 金銅佛에 銘文이 기록된 예가 남아 있는 사실과는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三、古新羅時代 佛像의 樣式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三國時代의 佛像은 三國이 모두 기본적으로 공통된 樣式이어서 어느 한 나라의 독특한 양식을 지적하기 힘들다. 특히 古新羅의 경우 문화가 高句麗나 百濟에 비해 全般的으로 後進性을 면하지 못하여 항상 高句麗나 百濟를 통하여 先進文化를 섭취하였기 때문에 古新羅의 경우는 高句麗와 百濟의 佛像의 作風이 어떤 부분에서는 뚜렷이

나타남으로 다른 兩國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적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예로 우리는 瓦當을 들 수 있다. 앞으로 古新羅時代 佛像에 관하여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하나 그것이 古新羅時代 佛像에서 약간 강하게 나타난다는 정도이다.

먼저 半跏像의 유행을 들 수 있다. 半跏像은 三國에서 모두 제작되었으나 古新羅時代 또한 성행하였다. 半跏像이 彌勒菩薩의 思惟像으로 표현되어 독특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그 思想的 背景은 彌勒信仰에 있었던 것이다. 卽 未來佛인 彌勒菩薩에 대한 신앙이니, 이 보살이 出現하기 앞서 衆生濟度를 龍華樹 밑에서 思惟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古新羅에서 半跏像을 많이 제작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彌勒菩薩을 널리 信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眞智王(五七六~五七八)代에는 興輪寺에 彌勒像이 奉安되어 있었고 ⑭ 이 절의 僧 眞慈가「願我大聖化作花郎」을 원하여 항상 이 彌勒像 앞에서「發原誓言」하다가 公州 水源寺에까지 갔고 드디어 未尸라는 郎子로 변신한 彌勒仙花를 만나 國仙으로 삼는 說話⑮, 또는 道中寺 중 生義가 꿈속에서 가리킨을 받아 南山 南洞에서 石彌勒을 얻어 三花嶺 위로 옮기고 善德王 十三年(六四五)에 生義寺를 創建한 說話⑯ 등은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眞慈의 說話에도 나타나듯이 彌勒菩薩은 곧 花郎과 직결되었으니 未尸로 化身한 彌勒을 國仙으로 추대한다든지 金庾信이 이끄는 郎徒들을「龍華香徒」라고 부른 사실은 당시 新羅人들의 彌勒佛에 대한 信仰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金庾信이 修道하였다는 中岳石窟로 比定되는 神仙寺의 磨崖佛群 중에 半跏像이 있음도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와같은 배경 아래서 金·石을 不問하고 半跏像이 다수 제작되었다. 古新羅期에 속하는 圓刻의 石造半跏像은 아직 發見된 例가 없으나 前記한 慶州 神仙寺磨崖半跏像이나 中原鳳凰里 磨崖半跏像 등 磨崖佛의 존재로, 또는 統一初期에 속하는 거대한 石造半跏像이 奉化에서 발견된 사실, 또

는 硬質의 岩石을 향하여 巨像을 彫刻할 수 있었던 石造技術 등으로 미루어 石造圓刻의 半跏像의 제작은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石佛에 비하면 金屬像의 傳來는 월등히 많아 급기야 國立博物館과 舊德壽宮美術館 소장의 최대의 大形 金銅半跏像 各一軀씩을 남기게 되었으니 鑄造技術은 물론 표현력이 완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日本 廣隆寺 木造半跏像이 양식상 매우 유사한 점으로 보아 그것이 新羅作이라는 견해가 매우有力해지고 있는 점은 비록 日本에 현존하기는 하나 新羅半跏像의 범주 안에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목할 만한 例는 皇龍寺址出土 金銅佛頭를 들어야 하겠다. 이 佛頭는 오른쪽 턱 밑에 작은 突起가 남아 있어서 원래 半跏像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온 작품이다. 이 佛頭는 現高 八·三cm로서 復原全高는 아마도 前記 大作의 金銅半跏像에 버금가는 크기로 四〇cm전후의 크기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皇龍寺에서 제작된 丈六의 金銅三尊像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半跏像은 능히 제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半跏思惟像에서 또 한가지 지적하여야 할 것은 出土地點의 擴散이라는 점이다. 舊德壽宮美術館의 半跏像은 그 出土地가 慶州 五陵의 廢寺址라고도 하고 忠南의 僻村이라고도 하나 모두 확실한 근거를 알 수 없어 論外로 한다면 당시의 首都인 慶州 이외의 地方에서 出土된 例로 安東과 榮州 등 慶尙道の 北端과 慶州의 남쪽인 梁山에서 최근에 발견된 例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出土地點의 擴散은 곧 제작 기술의 향상과 彌勒佛에 대한 신앙이 古新羅의 領域에 널리 전파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비록 이들 半跏像이 首都에서 제작되어 어떠한 인연으로 地方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彌勒信仰의 확대만은 인정해야 될 것이다. 더욱이 中原鳳凰里에서의 磨崖半跏像의 存在는 이러한 관점에서 또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姿勢에서 半跏像이와는 立像이나 坐像이 전부이고 倚像이나 交脚像이 거의 없음을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다. 이 점은 비단 古新羅에 한한 일이 아니고 高句麗나 百濟도 동일하며 그 이후 統一時代·高

麗時代가 되어도 예를 볼 수 없다. 倚像은 古新羅時代의 작품으로 慶州 三花嶺石造彌勒三尊에서 單一例를 볼 수 있을 뿐이며 交脚像은 星州老石洞 磨崖佛의 本尊과 左菩薩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는 統一時代의 作이며 佛身에 비하여 二軀 모두 발은 매우 빈약하며 交脚의 상대도 발목에서 엇갈려 있을 뿐이다.

古新羅時代에 해당하는 시기에 中國에서는 倚像·交脚像이 다수 제작되었고 日本에서도 七世紀後半에서 八世紀初로 추정되는 石造와 金銅의 佛像이 傳來하고 있고 ⑰ 이러한 추세는 統一新羅期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연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⑱ 法隆寺 十號壁畫의 藥師如來像에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佛像들이 三國時代 佛像과 매우 가까운 양식을 지니고 있어 소위 「渡來佛」이라고까지 추정되고 있음을 볼 때 三國時代를 통하여 倚像이 國內에서 一例만을 남기고 있음은 古新羅佛像이 발견된 예가 적은 탓도 있었으나 의아한 점이 없지 않다.

끝으로 지적할 일은 古新羅時代 佛像으로서 아직까지의 發見例 가운데서는 石造佛像이 金銅佛보다 오히려 적다는 사실이다. 石佛은 金銅佛에 비하여 장기본존이 가능하며 磨崖佛은 不動의 상태에 있어서 본존기간이 석불보다 길다. 더우기 金銅佛은 대개가 小形이고 거의 전부가 地下出土物이므로 千年以上の 土中으로 인한 손상은 出土例로 보아서 뚜렷하여 그 자체의 양식, 나아가서는 시대판정에 큰 곤란을 겪는 반면 石佛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형이며 土中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 오히려 遺例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실재는 그와 반대다. 한편 花崗岩 같은 硬質의 石材를 다루는 기술이 일찍이 발달하여 慶州 神仙寺 磨崖佛 같은 大作을 남겼고, 慶州 南山 三花嶺三尊佛 같은 秀作을 남겨 石造技術의 발달상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現存例가 예상외로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다. 한 예를 慶州 南山에서 들더라도 南北 八km, 東西 一〇km의 岩山에는 六十體가 넘는 石佛·磨崖佛이 전산에 散在해 있으나 古新羅期에 속하는 예는 三花嶺石造三尊과 佛谷磨崖如來坐像 뿐이고 추가할 수 있다면 葦長溪에서 발견된 佛頭(現在國立中央博物館)가

있을 뿐이다. 南山이 新羅 開國 이래 靈山임은 記錄을 통하여 짐작되는 바이고 統一期에 들어 石佛의 造成과 石塔의 건립이 크게 성행하던 상황을 생각할 때 石佛의 造成이 떨치지 못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을 古新羅時代 佛像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양상으로 지적하면서 이時期 佛像이 가지는 樣式을 보기로 한다.

먼저 古新羅에 있어서의 佛像을 造成하기 시작한時期는 물론 佛敎를 受容한 이후의 일로서 三國中 가장 늦어 六世紀 中葉以後로 추정된다. 寺院의 建立에 있어 五四三年의 興輪寺 창건을 필두로 해를 거듭하면서 大刹들이 건립되었고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僧 覺德이 梁에 유학하여 五四九年에 還國하였으며 ⑲ 드디어 五七四年에 皇龍寺에 金銅丈六巨像이 造成된다. 따라서 古新羅의 경우 六世紀 中葉 이전의 造成活動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興輪寺가 창건되던 때 中國은 北朝에서는 이미 北魏가 망하여 東魏와 西魏로 분열되었고, 南朝에서는 梁이 治世하던 시기였다. 古新羅에서는 興輪寺에 이어 寺院의 建立과 佛像의 造成이 점차 활발해지고 中國에 유학하는 僧侶들이 증가하였으니, 古新羅가 三國을 統一할 때까지의 中國은 南朝에서 五五七년에 梁을 대신하여 陳이 서고, 北朝에서는 五五〇년에 東魏가 망하고 北齊가, 五五六年에는 西魏가 망하고 北周가 서는 등 王朝의 交替가 빈번하더니 급기야 五八九年에는 隋가 天下를 통일하였고 六一八年에는 唐王朝가 서게 된다. 新羅가 唐兵을 請하여 三國을 통일하고자 唐年號를 사용하고 唐文化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실은 주지의 일이나 이에 앞서 南朝·北朝를 통하여 僧侶의 양태가 많았음은 史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으니 이러한 왕래를 통하여 中國佛像의 樣式이 傳來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中國에서는 南朝와 北朝가 民族을 달리하여 자연히 文化의 樣相도 相異한 바 있으나 佛敎彫刻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定說에 속하는 일이고 보면 新羅가 南朝와 北朝에 모두 通使하여 각자의 佛像樣成이 傳來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相異한 佛像樣式을 受容한 것은 아닐 것이고 또 現存하는 中國佛像은 거

의 모두 北朝佛뿐이고 宋朝以後의 南朝佛은 거의 없기 때문에 ② 오�히려 北朝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古新羅佛을 보면 첫째 相好는 童顏이고 佛身은 短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材料의 여하를 막론하고 佛·菩薩의 구별없이 공통된 樣式이다. 이러한 佛像이 제작되던 六世紀後半에서 七世紀前半에 걸친 시기는 중국에서는 北齊·北周에서 隋를 거쳐 初唐에 이르는 時期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古新羅佛 佛像에는 齊周내지는 初唐樣式的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中國에서 齊周樣式이 北魏의 硬直된 양식에서 벗어나 短軀童顏의 小兒를 대하는 듯한 人間味가 흐르는 양식으로 변화한 양식과도 상통하는 바 있다.

童顏인 相好에 따라 佛身의 표현도 北魏佛이나 百濟佛의 瘦身長軀에 비하면 훨씬 살이 오르고 短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半跏像이 童顏이면서도 허리가 가는 長身의 佛像이고 方形臺座金銅半跏像 같이 극도로 추상화한 예가 있는가 하면 右脚을 垂下하여 반대의 자세를 취한 半跏像(尹章燮所藏)은 長身이 아니고 허리는 가늘지만 몸에는 살이 상당히 울렸고 短軀이다. 즉 半跏像에 있어서도 살이 울라있으나 半跏라는 특이한 자세로 표현할 때 佛身의 比例上 必然的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여기서 手印에 관하여 첨가하면 高句麗나 百濟의 佛像이 金銅佛이나 石佛을 막론하고 通印의 두 손, 또는 주로 與願印을 취한 손의 藥指와 小指를 꼬부리는 形式을 통례로 삼고 있으나 古新羅의 佛像에서는 그러한 형식을 볼 수 없으니 하나의 특색으로 지적하여 둔다.

다음 衣紋에서는 如來는 通肩이고 坐像일 때에는 裳縣座가 나타나며 菩薩일때 天衣는 左右擴大의 形式을 취하고 衣紋은 左右對稱이 되어 三國時代의 공통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天衣의 左右擴大는 高句麗佛像같이 硬直하지도 않고 百濟佛像같이 우아한 맛도 적으며 中國佛에서 같이 強調되지도 않아 밀어 밀어 늘어진 부분이 비교적 짧다. 이것은 南宮鍊氏 소장의 百濟金銅如來坐像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半跏像의

경우 臺座를 덮은 衣紋의 표현은 대체로 어떠한 한 형식에 고정되지 않았던 듯하나 구부린 右脚 밑에 天衣자락의 일부가 마치 다리를 바치듯이 표현된 점은 공통되고 있다.

끝으로 臺座와 光背의 형식이다. 臺座는 金銅立像일 경우 예외없이 伏蓮座만인 점은 아마도 三國의 공통된 형식으로 보이며 石像에서는 百濟의 경우 磨崖立像에서도 같은 형식이나 古新羅의 경우는 三花嶺石造彌勒本尊에서 別造된 橢圓形 伏蓮石이 本尊의 臺座로서 마련되었을 뿐 他例에서는 伏蓮臺座를 볼 수 없다. ③ 또 神仙寺磨崖三尊中 兩菩薩 밑에 작은 仰蓮蓮花座가 있음은 仰伏蓮의 差는 있으나 같은 형식이라고 하겠다.

光背는 金銅佛인 경우 一例도 남아있지 않고 石像이나 磨崖佛인 경우 三花嶺彌勒三尊의 本尊을 제외고는 모두 장식없는 圓形頭光 뿐이다. 三花嶺本尊의 경우도 後頭部 주위에 작은 單瓣蓮花를 둘러 간단한 圓光이고 兩脇侍菩薩은 無文圓光이다. 이 점은 高句麗나 百濟의 金銅佛이 身光을 갖추고 있는 점, 石佛인 경우도 瑞山龍賢里磨崖佛이나 益山蓮洞里 石佛光背의 화려한 조각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다음에 이상과 같은 古新羅佛像 양식의 다음 時代로의 연계에 관해서 언급하여 두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古新羅時代 佛像의 양식은 新羅가 高句麗와 百濟를 통합한 소위 統一新羅時代가 되어도 당분간 계속된다. 統一新羅時代의 佛像양식은 古新羅時代의 佛像樣式과 구별되는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되지만 古新羅時代 佛像樣式은 七〇〇年前後까지 그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러한 여운은 裳縣座·衣紋·臺座·手印 등에서 볼 수 있다.

裳縣座는 各作例에 따라 差異는 있으나 臺座를 완전히 덮은 형식에서 臺座의 下部가 일부 노출되는 말하자면 過渡의 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癸酉銘三尊千佛碑像이나 奉化北枝里·榮州可與里 등의 磨崖佛 또는 軍威三尊石窟의 本尊佛 등에서 볼 수 있으며 慶州九黃洞三層石塔 발견 金製如來坐像에서는 더욱 현저히 나타난다.

이러한裳縣座에 나타나는衣紋은 대체로古式을 따라左右對稱으로 표현되고 있다。菩薩像의衣紋은左右對稱의形式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으로 변하여 가지만 癸酉銘三尊千佛碑像이나 榮州可興里磨崖三尊의脇侍菩薩에서와 같이天衣의形交×又의형식이 남기도 한다。

臺座는伏蓮 혹은仰蓮만으로 되어있던 것이伏蓮 위에 얹은仰蓮이 붙는 형식이 나타난다。潤松美術館의金銅如來立像이나甘山寺石造佛像二軀 등은 그러한 형식이며 이 형식이 더욱 발전하면仰伏蓮 사이에竿石을 갖춘統一新羅時代의臺座形式이 될 것이다。慶州九黃洞三層石塔에서 발견된二軀의金製如來佛中立像에서는三國時代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坐像에서는 이미統一新羅時代 양식으로 변하고 있다。

手印은奉化北枝里、榮州可興里、慶州拜里石佛 등의本尊佛에서와 같이七〇〇年경까지는三國時代의형식인通印을 취하고 있다。統一新羅時代가 되면如來像이降魔印·智拳印·說法印 등의手印을 취하게 되는데統一初期까지는通印의형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半跏思惟像이 계속造成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半跏思惟像은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작되고 있으나古新羅期の왕성한던 제작의욕이統一初期까지 미치고 있다。松花山半跏像·奉化北



도 1. 靑銅藥師如來立像

枝里半跏像·碑岩寺半跏像 등의石像은 두드러진例라고 할 수 있다。統一初期가 지나면半跏像의 제작이 급격하게 감소되니 이는信仰形態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四、古新羅時代 佛像의 作例

이상과 같은通觀은 현존하는古新羅期佛像의現存例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앞으로古新羅期の現存例에 대한 관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앞으로 몇몇 차례를 들어 그 특징을 보기로 한다。

一、金屬製佛像

먼저佛·菩薩像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靑銅藥師如來立像(圖一)

(高三〇·五cm、國立中央博物館藏)

이 불상은樣式的으로 특이할 뿐 아니라 전체에서 매우 강한인상을 풍기고 있다。肉髻가 매우 희미하여 거의 없는 듯이 보이며 머리가 매우 큰 점은古新羅佛에서 공통된 형식이다。右肩偏袒의着衣나三道の



도 2. 金銅如來立像

표현은 三國佛로서는 異例의이며 藥壺를 든 손을 밑으로 내리고 있음도 藥師如來의 일반형식과는 다르다. 衣端의 反轉이나 右手 밑으로 늘어진 衣端 또는 前面에 나타낸 음각의 衣紋은 강렬한 인상을 느끼게 한다. 臺座를 잃고 있으나 아마도 伏蓮座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鑄造技術 또한 매우 우수하다. 全面에 나있는 靑鏡의 色은 本地의 靑銅色과 조화를 이루었고 相好의 처리와 아울러 佛性表現에 성공한 예이다.

(2) 金銅如來立像(圖二)

(高三〇cm, 國立中央博物館藏)

京畿道 楊平郡 江上面 신화리 寺址에서 출토된 佛像으로서 발견장소가 확실하고 또한 그곳이 寺院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螺髮에 內髻는 작고 相好는 긴 편이다. 목이 성글하나 三道가 없으며 귀도 매우 크나. 목이 길어서 어깨와 간격이 있다. 法衣는 通肩이고 앞에서 크게 U字形으로 옷깃이 처졌고 그 밑으로 반부되는 반원형 옷주름이 있다. 두 팔을 거쳐 밑으로 처진 法衣는 옆으로 반진됨이 없이 수직으로 내려왔고 발목 위의 裙衣 끝에는 古式의 주름이 對稱으로 표현되었다. 두 손은 손상을 입었으나 施無畏·願의 通印으로 보인다. 光背와 臺座를 잃었으나 佛身은 長身이고 두꺼운 法衣로 인해 신체의 세



도 3. 金銅觀音菩薩立像

부는 보이지 않으며 어깨가 좁고 잡자기 하향하는 점 등 手印과 아울러 三國期 佛像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장대한 量感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아마도 古新羅末期의 제작으로 보인다.

(3) 金銅觀音菩薩立像(圖三)

(高二〇·七cm, 國立中央博物館藏)

一九六七年 서울 三陽洞에서 발견된 佛像이다. 머리에는 높은 三面花冠을 썼는데 중앙에 化佛坐像이 있어 觀音菩薩임을 알 수 있다. 相好는 약간 살이 울랐고 俯眼의 눈은 거의 같은 듯하고 입가에는 약간 미소가 있어 전체에서 온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짧은 목에는 三道가 보이지 않으며 반원을 그리며 짧은 목결이 있다. 天衣는 앞에서 반원을 그리며 二段으로 늘어졌고 팔에 걸친 天衣 끝은 짧다. 裳衣는 발목까지 내려와 있으며 左右에서 對稱으로 二段의 약간 반진이 있다. 오른 손은 옆에서 수평으로 들어서 寶瓶을 잡고 있으며 왼 손은 어깨 가까이까지 올려서 拇指와 人指만을 펴고 있다. 光背를 잃었으나 伏蓮臺座를 갖추었고 蓮瓣은 反轉없이 끝이 뾰족하나 입체감이 없다. 側面觀은 板形이나 前面의 表現은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長身에 비해 얼굴이 큰 점 등 시대성이 잘 나타나 있고 또한 百濟佛과도 깊은 연



도 4. 金銅菩薩立像

관을 볼 수 있다.

(4) 金銅菩薩立像(圖四)

(高三三cm, 國立中央博物館藏)

一九七六年 경북 善山郡 高牙面 鳳漢二洞에서 출토된 三軀의 불상 중의 하나이다. 머리에는 위가 수평으로 잘린 앞은 花冠을 썼는데 前面에 연꽃으로 타원형 윤곽을 돌린 속에 透彫手法로 化佛坐像이 있어 觀音菩薩임을 알 수 있다. 相好는 가능케 뜬 눈, 오목한 코, 작지만 윤곽이 뚜렷하고 미소를 머금은 입, 여기에 정돈된 일괄의 윤곽 등 佛像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형이다. 목에는 간략한 三道가 있고 어깨에도 아름다운 곡선이 나타나 있으며 몸에는 적당히 살이 올랐고 가슴은 풍만하나 허리는 가늘다. 상체는 裸形이고 허리 밑에 걸친 裳衣는 끝에 발목 위에서 약간의 반전이 있고 대칭으로 古式의 주름이 나 있다. 天衣는 앞에서 두 단에 걸쳐 반원을 그리며 늘어졌고 오른 팔에서는 밑으로 길게 내려와



도5. 金銅觀音菩薩立像

그 끝에도 古式의 주름이 있다. 전신에는 목걸이를 비롯하여 찬란한 영광을 걸쳤는데 영광은 背面에도 표현되었다.

비록 光背와 臺座를 잃었으나 佛身의 비례, 상호의 표현, 영광이 일부에서는 佛身에서 분리되어 있는 점 또는 背面도 소홀히 넘기지 않은 점 등 高度의 예술과 주조기술의 뛰어난 발달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全面에 금색이 찬란하며 전체에서 생명감이 약동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中國의 隋代 佛像과도 비교될 수 있으나 출토지가 佛教 初傳의 곳인 洛東江 연안의 선산이라는 점 또한 주목된다.

(5) 金銅觀音菩薩立像(圖五)

(高三四cm, 國立中央博物館藏)

一九七六에 앞에는 觀音菩薩像과 함께 출토되었다. 머리에는 앞은 寶冠을 썼는데 前面이 三角形으로 높이 솟아 그 안에 化佛坐像을 조각하였다. 相好는 풍만하고 눈과 입에 미소가 있어 한층 부드러워 보인다.

목에는 三道가 없고 중앙에서 한 가닥 구슬이 늘어진 반원의 목걸이를 걸치고 있다. 상체는 나채인 듯하고 허리에 걸친 裳衣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두 다리를 감싼 형태를 간략한 음각선으로 표현한 수법은 능숙하며 끝은 발등을 덮고 두 발사이로 대좌 위까지 내려와 있다. 天衣는 어깨에서 두 팔을 거쳐 무릎 위에서 반원을 그렸고 다시 양 옆으로 내려와 대좌 밑까지 이르고 있으나 중간이 절단되었다. 오른 손은 어깨까지 들어서 연꽃을 잡았고 왼손은 늘어뜨려서 무릎인가 잡았던 듯하다. 두 어깨에서는 영광이 늘어져 배 앞의 圓盤에서 교차되어 무릎에서 뒤로 돌아가고 있다. 대좌는 七瓣의 높은 單瓣伏蓮이고 앞 끝에 약간의 반전이 있다.

이 佛像은 一九〇七年 扶餘郡 窺岩面에서 出土된 二軀의 佛像과 매우 친근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도 7.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도 6.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新羅佛像으로는 異質感을 느끼게 하나 동시에 출토된 二軀의 佛像을 고려할 때 후백제에서 제작되어 傳來된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다음은 古新羅期에 크게 유행하던 半跏像을 들기로 한다.

(6)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圖六)

(高 八三·二cm、國立中央博物館藏)

경북 安東에서 日人에 의하여 반출되었다고 전하는 국내 最大의 金銅 半跏像 二軀의 하나이다. 머리에는 복잡한 寶冠을 썼고 垂飾이 좌우에서 어깨까지 내려와 있다. 相好는 살이 울랐고 俯眼에 思惟의 표정이 뚜렷하다. 목에는 三道가 없고 天衣는 어깨에서 앞, 좌우로 늘어져 무릎 위에서 교차되었으며 다시 두 무릎과 팔을 거쳐 뒤로 돌고 있다. 배에는 裳衣의 매듭이 보이고 天衣는 두 무릎에서 반원형주름이 반부되고 오른 쪽 무릎 밑에서도 대체로 같은 형식이나 衣端에는 古式의 주름이 있으며 좌우 측면에는 紐帶가 늘어져 있다. 왼쪽 다리를 늘어뜨려 연꽃을 밟고 있는 半跏의 자세를 취했고 오른손으로 불을 받쳤고 왼손으로는 오른 발목을 잡고 있다.

신체의 비례도 아름답고 세부의 조각 수법까지 우수한 역량을 보여 주는 조각의 하나이다.

(7)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圖七)

(高 九三·五cm、國立中央博物館藏)

이 半跏像은 원래 德壽宮美術館에 전해오던 像으로서 前記한 半跏像 보다 약간 큰 像이다. 머리에는 간략한 三面冠을 썼고 俯眼에 미소를 띤 상호는 더욱 풍만해졌다. 상체는 완전히 裸形인데 목에 가는 음각선이 있고 그 밑에 원을 그리며 두 줄의 간소한 목걸이를 걸쳤다. 허리에서 밑으로 裳衣를 걸쳤고 두 무릎에 옷주름이 있으나 두 다리가 분명히 표현되어 매우 얇은 감각을 내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비하면 동근 대좌를 덮은 옷주름은 대칭적이며 입체감에 넘치고 있다. 오른 손을 불에 대고 왼손으로 발목을 잡은 점은 通式이나 왼손은 더욱 깊이 발목 위를 잡았다. 前記한 半跏像에 비하여 간소한 점은 일견하여 알 수 있으나 불에 대

손가락, 힘을 주어 발목을 잡은 왼손, 무릎위에 앉힌 오른발의 발가락 등
의 표현에는 생동감이 넘치고 옷주름의 사실적인 표현은 매우 훌륭하다.
이 半跏像은 古新羅時代의 造成으로 추정되고 있는 日本京都 廣隆
寺의 木造半跏像과 자주 비교되며 아마도 신라에서 이러한 양식의 半跏
像이 많이 제작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8)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圖八)

(高一〇·七cm, 尹章燮藏)

이 半跏像은 경복 榮州부근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며 여러가지 점에
서 異例에 속하는 像이다. 첫째 寶冠의 형식이 通式에서 벗어나 重瓣의
蓮花로 높게 표현되었고 둘째 寶髮이 좌우로 뻗다가 직각으로 밑으로 내
려오고 있다. 셋째로 불에 맨 왼손은 두 손가락을 꼬부려 外掌하고 있
으며 넷째로 허리가 유난히 가늘어 졌고 따라서 胸部가 매우 빈약하게
된 점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通式과의 뚜렷한 차이점은 垂下한 다리
가 通式과는 반대이며 따라서 두 손도 반대인 점이다.

寶冠과 寶髮의 형식, 가는 허리와 빈약한 胸部, 그리고 불에 맨 왼손
의 형식, 어깨 위에서 좌우로 확대된 天衣, 무릎에서 밑으로 늘어진 衣



도 8.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紋의 처리 내지는 通式과 반대의 자세 등은 國立中央博物館藏의 金銅半
跏像과 거의 동일한 수법이나 다만 이 像이 매우 肥滿하다는 점이 다
를 뿐이다. 國立中央博物館藏의 半跏像의 出土地는 분명하지 않으나
강직한 선이나 장방형의 相好等 高句麗佛像과의 친연관계를 상정하게
하여 이 像이 榮州부근 출토라고 전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출
토지가 확실하다면 榮州부근에서 제작되었던 특이한 半跏形式이며 高句麗
樣式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나 추정된다.

(9)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圖九)

(高一五·四cm, 國立中央博物館藏)

이 半跏像은 경복 安東市 玉洞에서 발견된 像이다. 머리의 寶冠은 매
우 낮고 相好는 童顏인데 넓은 미소를 띠고 있다. 寶髮은 옆에서 굽게
늘어져 두 어깨를 덮었고 목은 발아 三道가 없으며 목에는 짧은 목걸이
가 있다. 上體는 裸形에 허리는 가늘고 허리 밑으로 裳衣를 걸쳐 수직
으로 된 주름에 그 끝을 波狀으로 만들었다. 오른손은 들어서 손가락
을 모두 불에 대어 거의 손바닥으로 턱을 받힌 듯하며 좌이 숙인 얼굴
과 함께 깊은 思惟의 자세를 나타내어 매우 인상적이다.



도 9.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이 佛像은 출토지가 확실하고 더우기 안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비록 작은像이지만 新羅半跏像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10)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圖一〇)

(高 二七 cm、國立中央博物館藏)

一九七五年 경남 梁山郡 勿禁面 由山里에서 출토된 半跏像이다. 머리에는 높은 三面冠을 썼고 相好는 약간 긴 편이나 볼에 살이 올라 童顏에 가깝다. 寶髮이 어깨를 덮었고 上體는 비교적 長身에 裸形이며 가슴과 배에 턱을 두어 입체감을 내었다. 허리 밑으로 裳衣를 입었고 臺座 밑으로는 古式의 옷주름이 나 있다. 오른손으로 깊이를 잡았으나 발에 비해 손이 큰 편이다. 출토지가 梁山이라는 점은 주목되며 오랜 土中으로 두꺼운 녹이 덮혀있으나 출토지가 확실한 新羅半跏像으로서 주목된다.

(11) 金銅半跏思惟像頭部(圖一一)

(高 八·三 cm、國立慶州博物館藏)

머리에는 앞은 三面冠을 썼고 相好는 가름하여 가는 눈과 작은 입에 미소가 넘쳐 童顏에 가깝다. 오른쪽 턱에 작은 突起가 있어 원래 半跏思惟像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비록 頭部만이 남아있으나 완전한 像이



도 10.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도 11. 金銅半跏思惟像頭部

었다면 상당한 大作이었으리라 추측되며 오랜 土中에서 많은 손상을 입고 있으나 높은 예술성을 발휘하고 있다. 더우기 出土地가 新羅의 巨利 皇龍寺址라는 점 또한 주목된다.

二、石造佛像

古新羅時代의 石造佛像의 例는 前述한 바와 같이 그 遺例가 金銅像에 비해 매우 적으며 새로운 발견례도 거의 없다. 또한 現存例가 거의 당시의 首都 慶州에 집중되어 있음은 金銅佛과는 다른 상황이다.

(12) 石造如來坐像(圖一二)

(高 九一 cm、國立慶州博物館藏)

佛身과 光背와 臺座를 一石으로 만들었고 石像치고는 작은 像이다. 肉髻는 크고 相好는 童顏이나 살이 약간 빠진 편이다. 눈은 감은 듯이 가늘고 입은 크고 입술은 두꺼운 편이나 미소를 띠고 있다. 귀는 길어 어깨에 닿았고 발은 목에는 三道가 표시되어 있다. 通肩의 法衣는 두꺼워 어깨와 무릎이 보일 뿐 허리의 굴곡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衣紋은 前面에서 結帶이 半圓을 그리며 臺座 위까지 내려왔고 그 끝은 다시 臺座 앞으로 늘어져 古式의 주름을 내었다. 두 손은 通印이나 손상을 입고 있다. 光背는 擧身光인 듯하나 손상이 많아 圓形頭光의 윤곽만을 볼 수 있고 臺

座에는 다른 조각이 없다.

古態를 띤 佛像으로서 古新羅時代의 石造彫刻의 양식상 매우 중요시 되는 작품이다. 이 불상은 慶州市 仁旺洞 仁容寺址에서 옮겨 온 것이라고 전한다.

(3) 石造如來坐像(圖一三)

(高 八六cm、國立慶州博物館藏)

佛身과 光背와 臺座를 一石으로 만드는데 앞의 石造坐像과 거의 같은 양식이나 立像이면서도 크기는 오히려 작다. 肉髻는 큰 편이고 相好는 앞의 石像보다 살이 약간 더 오른 童顏이고 눈은 가늘고 俯眼이며 작은 입에는 미소를 띠었다. 목은 매우 발고 法衣는 通肩에 더욱 두꺼워 佛身の 윤곽은 전혀 볼 수 없으며 앞에서 U字形 주름이 여러 단 나있고 발은 발목 위에서 거의 水平으로 처리하였다. 右手는 가슴 앞에서 施無畏印을 結하고 左手는 水平으로 들어서 옷깃을 잡고 있는 듯하여 이 手印은 慶州 九黃洞 三層石塔에서 발견된 金製如來坐像과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法衣의 처리도 매우 親緣性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양식의 불상이 七세기 후반기에 유행했던 듯하다. 光背는 舉身光이나 頭光의 윤곽



도 12. 石造如來坐像

만이 보일 뿐 身光은 손상으로 분명하지 않고 臺座에는 單瓣伏蓮이 조각되었다. 비록 작은 석상이나 樣式上 매우 주목되는 작품이다.

(4) 慶州南山 三花嶺石造彌勒三尊像(圖一四)

(高 本尊一·六m、菩薩一m、九八·五cm、國立慶州博物館藏)

이 三尊石像은 慶州南山 三花嶺 속칭 부처등 석굴 안에 봉안되었던 것을 日政 때 옮겨 온 것이다. 三尊의 양식으로 보나 奉安 위치 또는 三國遺事에 기록을 남긴 점 등으로 보아 23 매우 주목되며 제작된 年代도 善德王 때(六三三~六四六)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古新羅時代 佛像 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遺例라고 하겠다.

本尊은 비교적 短頸에 全身이 풍만하고 눈은杏仁形이고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다. 발은 목에는 三道가 없으며 法衣는 通肩이고 가슴 앞이 넓고 길게 노출되어 그 곳에 掩掖衣와 裙衣의 結帶가 나타나 있으며 가슴에는 卍字를 새겼다. 衣紋은 팔에서 段을 이루었고 두 무릎에서 渦紋으로 나타냈으며 좌우의 衣端에는 古式의 주름이 나 있다. 두 손은 각각 무릎 위에서, 右手는 손목을 세워 外掌하였는데 손가락을 꼬부렸고 左手는 上掌하여 衣端을 잡고 있다. 이 本尊像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색



도 13. 石造如來立像



도 14. 慶州南山 三花巖石造彌勒三尊像

을 方座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늘어뜨린 이른바 倚像의 자세이니 우리 나라 佛像에서는 唯一한 예라고 하겠다. 頭光은 圓光으로서 後頭部 上에 單瓣蓮花를 음각으로 돌렸을 뿐이고 佛身 밑에는 역시 單瓣蓮花를 돌린 타원형 대좌가 마련되었다. 또한 背面에는 圓光과 臺座의 윤곽이 있을 뿐 전혀 造型의 흔적이 없어 正面觀 重視의 경향이 나타난 점 또한 주목된다.

左右의 脇侍菩薩은 크기나 양식이 거의 동일하다. 머리에는 三面冠을 썼고 相好는 가는 눈과 미소를 띤 작은 입 등 童顏임이 如實하다. 목에는 三道가 없고 짧은 목걸이를 걸었고 佛身은 더욱 풍만하며 몸에 비하여 머리가 큰 점은 本尊과 같다. 天衣는 두 어깨에 걸쳤고 앞에서 二段의 넓은 半圓을 그리며 늘어졌으나 X形의 교차는 없고 다시 두 팔을 거쳐 左右에서 垂下하여 臺座에 이르고 있다. 兩菩薩의 손은 각각 다르게 손에 잡은 물건에는 차이가 있다. 이 菩薩像은 일견하여 本尊과 양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本尊의 左右에 脇侍하여 三尊像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兩菩薩의 背面의 처리 또한 本尊과 같이 正面觀 重視의 手法를 따르고 있다.

(5) 神仙寺 磨崖佛像群(圖一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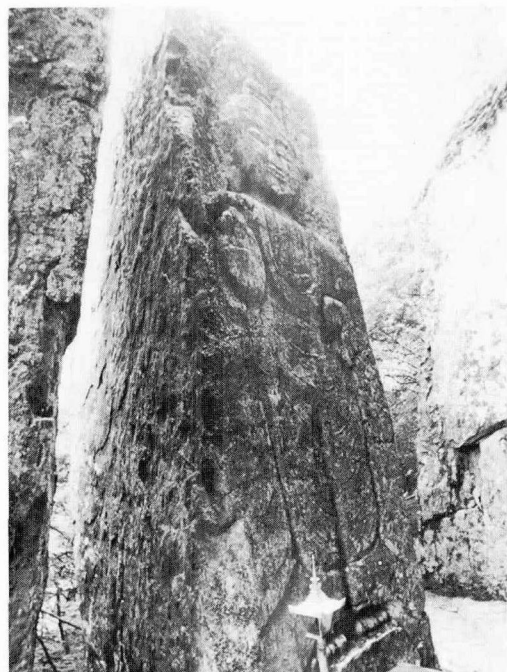
(高 本尊 八·二m、菩薩 약 二·一m、半跏像 一·一m)

慶州 斷石山 우중골에 上人巖이라고 하는 巨大한 岩石이 있어 자연의 凹形 石窟을 이루고 그 內壁에 三尊의 巨像을 양각하고 本尊 옆의 또 하나의 岩壁에는 七軀의 小像을 陽刻하였으며 南巖의 菩薩像 앞에는 數百字의 「上人巖造像銘記」가 있어 더욱 주목된다.

本尊은 풍만한 相好, 杏仁形의 눈, 미소를 띤 작은 입, 二段으로 된 작은 肉髻 등 모두 古態를 띠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童顏임이 분명하다. 목에는 三道가 없으며 法衣는 通肩에 크게 U字形으로 가슴이 노출되었고 가슴 밑에 裙衣의 매듭이 보인다. 法衣는 얇아서 두 다리의 윤곽이 분명하며 그곳에 가는 양각선으로 주름을 내었고 다시 좌우로 늘어져 발 밑까지 내려왔다. 두 손가락을 펴서 通印을 結하였고 光背나

蓮花座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兩菩薩像은 狀態가 매우 고르지 않아 細部를 볼 수 없으나 東巖의 菩薩은 仰蓮座 위에 直立하였고 法衣의 처리는 大體로 本尊像의 형식을 따랐으며 右手는 前面에서 寶瓶을 들고 左手는 들어서 가슴에 대고 있다. 南巖의 菩薩像은 거의 세부를 알 수 없을 정도이나 手印의 차이가 있을 뿐 仰蓮의 臺座、法衣의 처리 등 東巖의 菩薩像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

本尊 옆의 岩壁에 조각된 像은 上段에 如來立像 三軀와 本尊 쪽으로 거리를 두고 半跏像을 나란히 조각하였다. 如來立像의 三軀는 모두 寶珠形、頭光을 갖추었고 그 中 二軀는 蓮花座가 있으며 一軀만이 通肩이고 二軀는 右肩偏袒인 점 또한 주목된다. 끝의 半跏像은 左足を 垂下한 通式이며 밑에 伏蓮座와 머리에 圓光을 갖추고 있다. 또한 如來三像의 右手의 모습은 각각 다르나 左手는 한결같이 本尊 쪽으로 벌리고 있음은 下段의 二軀의 人物像의 자세와 아울러 本尊으로 인도하려는 자세로 보인다. 下段에는 本尊 쪽 岩端에 통바지에 긴 저고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손에는 향로와 나무가지들은 人物像이 本尊을 향하여 공양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들 彫



도 15. 神仙寺磨崖佛像群



도 16. 慶州南山佛谷磨崖如來坐像

像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높이五六·六cm) 如來立像이 조각되었다.

三尊巨像을 포함한 이들 彫像이 있는石窟은 金庾信將軍이 修道하였다는 斷石山中岳石窟에도 比定되며 銘文에 나오는 「作彌勒石像一區高三丈菩薩二軀」의 文句로 보아 彌勒三尊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 三尊像은 古新羅期 最大의 像이며 古拙한 作風으로 보아 아마도 最古의 作이 아닐까 추정된다.

(16) 慶州南山佛谷磨崖如來坐像(圖一六)

(高一·四二m、慶州市仁旺洞)

岩面을 약 1m로 파고 그 안에 거의 圓刻에 가깝도록 坐像을 조각하였다. 相好는 둥글고 肉髻는 얇고 素髮의 머리가 마치 두건을 쓴 것 같이 표현되었다. 얼굴은 약간 숙이고 눈은 俯眼이어서 밑을 내려다 보는 듯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입술은 두꺼운 편인데 미소가 있어 앞에 든 (12)의 石造如來坐像과 흡사하나 더욱 친진스러워 보인다. 목에는 짧은 무릎이를 걸었고 그 밑으로 掖衣의 斜線이 보인다. 法衣는 通肩이며 옷주름은 대체로 음각선으로 표현하였으나 부드러운 감을 준다. 두손은 수평으로 들어서 서로 잡고 있는 듯하나 法衣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結跏趺한 무릎은 옆으로 넓게 퍼졌고 이곳

에서는 半圓을 그리는 음각의 衣紋이 있으며 右足이 앞에서 크게 나타나 있음은 異例의이다. 衣端은 臺座 위로 늘어졌고 左右對稱의 衣紋이 역시 음각으로 조각되었다.

조각수법은 古拙하며 손과 발의 형식은 특이하다. 南山에는 수 많은 石像, 磨崖像들이 있으나 이 如來像은 三花嶺三尊石像과 아울러 매우 드문 古新羅期 作例의 하나이다.

(17) 中原鳳凰里 磨崖佛像群(圖一七)

(高 半跏像 一·五m, 如來像 六一cm)

中原郡 可金面 鳳凰里 햇골산 중턱에서 一九七九年에 발견된 磨崖佛·菩薩群이다. 폭 약 5m 높이 약 一·七m의 암벽에 半跏像과 左右脇侍菩薩, 바로 인접해서 西便에 三尊立像, 약간 거리를 두고 如來坐像과 脇侍像, 그 밑의 獅子 등 八軀의 佛菩薩과 獅子 一軀가 조각되었다.

半跏像은 머리를 빼어낸 듯 완전히 없어졌지만 턱을 받치고 있는 右手는 뚜렷히 남아 있다. 左足を 垂下하고 左手로 발목을 잡은 半跏의 자세인데 무릎은 한층 넓고 왼쪽 팔을 옆으로 벌리고 있다. 衣紋은 분명하지 않다. 上體는 裸形인 듯하고 무릎 밑으로는 古式의 衣紋이 있고 下端에는 줄기에 달린 네송이의 연꽃을 새겨서 蓮花座를 마련하였다. 兩脇侍 또한 손상이 많고 더우기 左脇侍像 또한 얼굴을 빼어낸 듯하고 右脇侍는 옆의 三尊佛 左脇侍의 뒤에 가려져 있다. 衣紋의 細部는 분명하지 않으나 몸은 長身이며 左脇侍만은 발 밑에 圓錐形 臺座가 있어 三國時代 臺座의 形式을 보이고 있다.

서쪽의 三尊은 모두 立像이고 左脇侍는 半跏像처럼 얼굴이 떨어져 있다. 모두 相好는 긴 편이고 本尊은 목에 짧은 목걸이를 걸치고 法衣가 배 밑에서 넓게 半圓形으로 나타나 있으며 두 손은 모두 내리고 있다. 兩脇侍는 유난히 허리가 가늘고 얇은 天衣가 옆에서 臺座까지 늘어져 있다. 三尊 모두 長身이며 발 밑에는 圓錐形 臺座가 있으나 右脇侍는 岩面의 과손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쪽으로 거리를 둔 如來像은 岩石의 과손으로 下半部는 보이지 않음



도 17. 中原鳳凰里磨崖佛像



도 18. 芬皇寺石塔仁王像

나肉髻는 오탁하고相好는 方形이며 귀는 길어 어깨에 닿았다. 三道는 보이지 않고 法衣는 通肩이고 크게 U字形 三條의 주름이 있어 가슴이 노출되었다. 두 손은 通印이다. 如來像의 右側에는 한쪽 무릎을 꿇고 다 른 무릎은 세우고 두 손으로 무엇인가 받들어 如來像을 향한 側面의 像이 있는데 옆에 긴紐帶가 늘어졌다. 이 菩薩像 밑에는 웅크리고 있는 獅子像 一軀가 있으나 윤곽만 보일 뿐이다.

이들 磨崖佛像群 특히 半跏像은 磨崖佛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그 地理的 위치 또는 이 인근 지역에서 高句麗碑와 建興銘의 高句麗時代 佛像이 발견된 점과 아울러 매우 중요한 유례라고 하겠다.

(8) 芬皇寺石塔仁王像(圖一八)

(高 약 一·三m, 慶州市 九黃洞)

芬皇寺石塔 初層塔身 四面에 二장의 石扉를 단 龕室을 開設하고 그 좌우에 仁王像 一軀式을 花崗石에 조각하여 끼웠다. 古新羅期의 佛像이 모두 佛菩薩를인데 비해 유일한 佛菩薩 아닌 像이다. 얼굴의 표정, 두 팔의 모습, 裸形의 上體 등 仁王으로서의 성격을 잘 나타내었고 天衣는 두 팔을 거쳐 좌우에서 가볍게 늘어졌고 앞에서는 X형으로 교차된 像도 있어 三國期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衣端에는 古式의 주름을 나타냈고 목에는 짧은 목걸이를 걸었으며 머리에는 장식없는 圓光을 갖추는 등 역시 古式을 따르고 있다.

이상 열거한 諸例의 제작연대는 서기 六〇〇년에서 크게 올라가는 작품이 없고 거의 모두가 六〇〇年 이후의 작품들이다. 이 점은 고구려나 백제의 佛像과는 양상을 다소 달리하고 있으니 新羅에서의 佛敎受容이 五二八年이고 五三〇年代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造像活動이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五七四年의 皇龍寺丈六三尊의 造成 사실을 생각할 때 古新羅에서의 造像은 급속도로 활발해 진 듯하다. 이와 병행해서 金屬像의 鑄造技術도 상당한 진전이 수반되었을 것이고 花崗石과 같은 硬質石材를 다루는 기술 또한 발달되었음은 現存하는 例가 비록 六〇〇年에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六世紀에 이미 뚜렷한 作例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짐작되는 바이고 (1)의 靑銅藥師如來立像이나 神仙寺磨崖三尊 같은
像과 유사한 樣式이 古新羅에 있어서도 비교적 빠른 시기의 樣式이 아
니었던가 추측된다.

五、結 語

이상 古新羅時代 彫刻에 대한 몇 가지의 問題點과 樣式 또는 현존한
作例에 대하여 서술하여 왔으나 本論에서 言及한 범위는 佛像彫刻에 한
하였다. 古新羅時代 古墳에서는 土偶 또는 象形土器들이 출토되어 이러한
遺物에서 彫刻의 始源의 인 양상을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統一新羅時代
로 연결되지 않고 佛像彫刻과는 더우기 연관이 없다. 또 이러한 土製品들
이 모두 小形이고 工藝的인 성격이 농후함으로 우리나라 彫刻의 큰 흐름
에서 생각할 때 次元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을 수 없었다.

古新羅時代 佛像彫刻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그 樣式的인 특색이나
흐름을 밝히기에는 여러가지 難點이 개재하고 있다. 근래에 古新羅期에
속하는 佛像의 發見例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出土例를 통하여 차츰 난
점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나 이러한 난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專門學者들이 내리는 佛像에 대한 年代推定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때
에 따라서는 所屬國家의 推定에 대한 차이도 있으나 年代의 문제는 더
욱 그러하니 이는 곧 그 佛像에 銘文이 수반되지 않은 까닭에 判定의 기
준은 결국 樣式에 두지 않을 수 없으나 樣式的 비교에는 主觀的인 판단
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年代推定의 차이는 이러한 데서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三花嶺三尊石像 같이 記錄의 뒷받침이 있어 樣
式과의 합치를 보게 되면 年代推定에 대한 異議는 크게 해소되겠지만 그
러한 記錄의 색출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여하튼 앞으로의 연구와 새로운 資料의 출현을 기다려 古新羅時代 佛
像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

註

① 『三國遺事』卷三 阿道基羅條

② 上揭書 卷三 順道肇麗條

③ 註① 參照

④ 『三國史記』卷四 眞興王 五年條

⑤ 上揭書 卷四 眞興王 二十七年條

⑥ 註⑤

⑦ 上揭書 卷四 眞平王 十九年條

⑧ 上揭書 卷四 眞興王 十四年條

⑨ 上揭書 卷四 法興王 二十七年條、眞興王 三十七年條、眞智王 四年條

⑩ 上揭書 卷四 眞興王 三十五年條

⑪ 眞興王子的 이름도 銅輪, 金輪이었다.

⑫ 上揭書 卷四 眞興王 十六年條

⑬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天皇 二十四年(眞平王 三十八年, 六一六) 秋七月條

에 「新羅遣奈末竹世士貢佛像이라 있고 元亨釋書에도 「新羅王貢金像長二尺

安峰岡寺라 있다.

⑭ 『三國遺事』卷三 彌勒仙花條

⑮ 註⑭

⑯ 上揭書 卷三 生義寺石彌勒

⑰ 日本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東京深大寺 釋迦如來像, 奈良石位寺 石造

三尊像, 四十八體佛中 阿彌陀三尊과 如來像

⑱ 東京眞覺寺 藥師如來像

⑲ 『三國史記』卷四 眞平王 十年條

⑳ 一 예로 四川省 成都 萬佛寺址出土 梁代 天和二年(五六七) 銘菩薩石像을 들

수 있을 정도이다. 鈴木敏・松原三郎著 東洋美術史要說下 P.P. 二五一—二

五二參照

㉑ 이 외의 예로는 黃壽永 「新羅兩山 三花嶺彌勒世尊」注五 (金載元博士回甲

紀念論叢 所收) 參照

㉒ 秦弘燮著 「韓國의 佛像」插圖五五

㉓ 註⑬